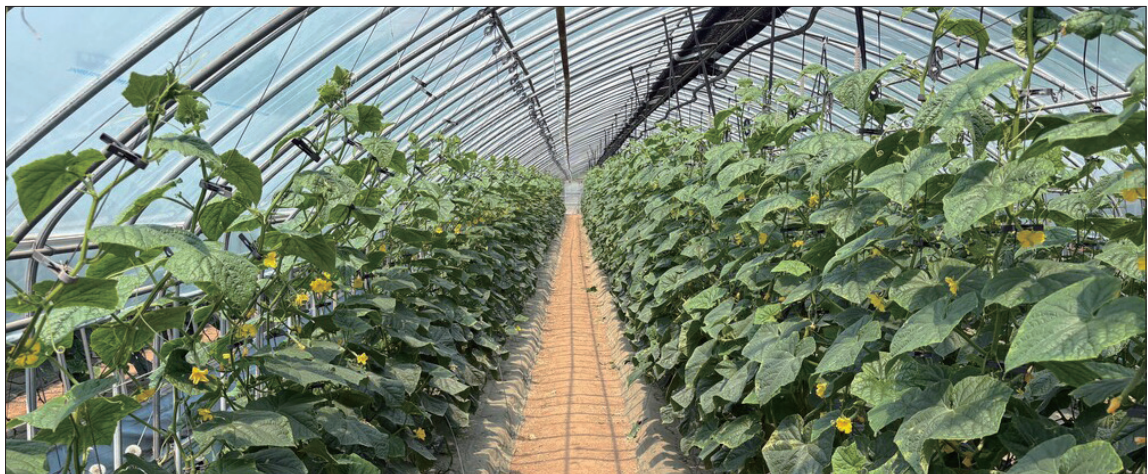


저온기 생육 안정성 돋보이는 ‘설향백다다기’



▲농협 제공

짧은 절간... 작은 잎으로 재배관리 용이해

시설 오이 재배는 온도와 일조량 변화에 민감해, 특히 겨울철 저온기에는 생육부진과 착과 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생육과 고품질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온기 특

화 품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동오그룹의 종자 전문기업 (주)동오시드가 선보인 저온기 백다다기 오이 ‘설향백다다기’가 농가와 시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저온기 오이 재배의 유망 품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동오시드의 ‘설향백다다기’는 초세가 안정적이고 과색이 짙고 균일도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저온기 환경에서도 생육이 안정적이며, 우수한 과신장력과 착과력을 발휘해 수량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절간이 짧고 잎이 작아 재

배 관리가 용이하며, 과형은 중장 과형으로 비대력이 뛰어나 균일한 상품 오이를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어깨색과 바탕색이 모두 진해 특상품 비율이 높고, 어깨빠진 현상이 적어 시장 출하 시 선호도가 높은 프리미엄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재배 농가에서는 “설향은 저온기에도 초세가 무너지지 않고, 착과가 일정해 관리가 편하다”, “균일하고 진한 과색 덕분에 시장 반응이 좋다”는 현장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오시드 관계자는 “설향백다다기는 단순히 품질이 좋은 오이를 넘어, 저온기 시장에서 믿고 재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설향백다다기처럼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저온기 백다다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etimes.com

농진청, ‘신품종 홍보 및 시식 평가행사’ 개최

서울 가락시장서 ‘감풍’ 단감 등 신품종 홍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10월 30일,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전국 3개 도매시장 경매사를 대상으로 ‘신품종 홍보 및 시식 평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품종은 사과(‘골든볼’ 등 4종), 배(‘월원’ 등 4종), 단감(‘감풍’ 등 3종), 포도(‘슈팅스타’ 등 3종), 감귤(‘미니향’ 등 3종) 5품목 17종이다.

지난 30일 1차 행사에서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도매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참석해 도매시장의 신품종 판촉(마케팅)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신품종 특징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신품종을 시식한 후 품질을 평가하고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신품종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품종별 출하 시기나 포장재, 유통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제시됐다.

농진청은 이 자리에서 나온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신품종 생산 단계에 전달해 시장 중심의 상품화 및 판매 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품종 홍보 및 시식 평가행사는 2차로 11월 4일 광주서부 농산물도매시장, 3차로 11월 5



일부산업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농진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농산물의 약 60%가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만큼, 도매시장 유통인 대상 신품종 홍보를 강화해 시장 내 수요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도매시장 유통인과 협력해 신품종 판매 여건을 조성, 농가 소득 증대와 신품종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농진원, 과수 무병화 인증 체계 강화

과수 묘목 생산업체 대상 실무형 교육 운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 이하 전남대)와 함께 대학의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2025년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기후변화와 토양 환경 악화로 인한 연작장해(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해 생기는 피해)와 토양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생태계 교란과 병해충 확산이 심화되면서,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기존 관행농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양 건강 회복과 병해 억제에 효과적인 미생물농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 정우진 교수 연구팀은 토양 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CE100(Bacillus velezensis CE100)’ 미생물을 개발하였다. 이 균주는 키틴과 젤라틴을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토양 내 유

해균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물 뿌리 주변의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 교수팀은 해당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미생물 제제를 제조하고, 2025년 8월 전북 고창군에서 시설 수박과 멜론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과실 당도 10% 이상 증가 ▲병해 피해를 20~30%에서 3% 미만으로 감소 ▲비료·농약 사용량 20% 이상 절감 ▲유익균 증가(Bacillus sp. 62.1%, Streptomyces sp. 30.8%) 및 유해균(Fusarium sp.) 78.3%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증에 참여한 전북 고창군 김

대현 농가는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시들음병 피해가 심각했지만, 사용 후에는 피해가 거의 사라지고 당도와 품질도 크게 향상되어 소득이 50% 이상 늘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팀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파우더형 미생물제제를 시설 과채류, 영채류, 골프장 잔디 등 다양한 작물과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별 활용 매뉴얼 제작과 영농교육 등 현장 중심 컨설팅을 통해 미생물농법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이번 실증 성과는 농업 현장 해결과 미래 친환경 농업 확산의 모범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 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며, “농진원은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대학 등과 협력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모습(정영민 팀장)

전남농기원, ‘2025국제농업박람회’서 ‘열대&향기 치유관’ 운영

허브와 열대식물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10월 29일까지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허브 향기 식물과 열대풍 정원으로 꾸민 ‘열대&향기 치유관’을 운영했다. 이번 치유온실 전시관은 관람객이 오감으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향기 치유를 위한 허브류 전시 공간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열대풍 화단으로 구성됐다. 전시관에는 은은하고 싱그러운 향을 지닌 로즈마리, 바질, 율마, 라타나, 장미허브 등 다양한 허브 식물과 함께 드레곤하트,

칸나, 크로톤, 콜레우스 등 화려한 열대식물이 조화를 이뤘다.



▲2025국제농업박람회서 ‘열대&향기 치유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 내부에는 방문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되었으며, 꽃향기와 색채가 어우러진 정서와 힐링 회복형 공간으로 꾸며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조운섭 전남농업기술원 원예 연구소장은 “치유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삶의 질을 돌보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원·농업·치유가 결합된 융복합 기술을 통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은 이번 ‘열대&향기 치유전시관’ 운영을 통해 농업의 심리적·정서적 가치 확산과 정원·치유 산업의 확장 가능성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농관원,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공공비축벼 45만 톤 매입검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2025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5만 톤(쌀 기준)에 대한

매입검사를 시작했다. 10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을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된 물량에 따라 전국 천 여 개 검사장

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25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5만 톤으로 포대벼 33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3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

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농관원은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국 검사관을 대상으로 매입요령 등 업무설명회를 개최(9.29. 155명)하였으며, 매입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벼 품위 점검도 실시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재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농협사료의 발자취

어둠이 내려앉은 재해의 현장, 그곳에도 농협사료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폭우 속에서,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협사료의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마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축산농가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농협사료 임직원 올림

